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급성기 인증의료기관 중간현장조사 평가 성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19일 급성기 인증의료기관 중간현장조사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수검은 지난 2015년 2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2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한 이후 2년째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중간평가로서, 2주기 급성기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인증원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증 이후의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조사위원 2인이 ▲환자안전 ▲직원안전 ▲화재안전 ▲질 향상 운영체제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 9개 기준, 56개 조사항목의 필수기준을 전수 조사하고, 최우선 관리기준(30개 기준, 172개 조사항목) 중 6개 기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인증 조사기준과 병원 규정에 맞춰 올바르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세심한 조사를 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 후 매년 두 차례 자체조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의료의 질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중간현장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진호 병원장은 “이번 중간현장조사를 철저하고 성실하게 준비한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지속적인 환자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통해 더욱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병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재활의학과, 대한재활의학회 우수 봉사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는 지난 20일과 2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2017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봉사상을 수상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12년부터 중증 장애 요양시설인 김포 가연 마을과 인연을 맺고 매년 2회씩 장애인들의 합병증 발생 예방과 영양관리 및 기능적 활동 유지를 위해 전문 진료와 레크리에이션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우수봉사상은 대한재활의학회가 매년 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한 기관의 재활의학과 또는 회원을 선발해 공로를 격려하는 상으로 올해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수상을 했다.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행복하고 주체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지속해서 봉사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한국생체재료학회 차기 회장 선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개최된 한국생체재료학회에서 2018년 수석부회장 및 2019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생체재료학회는 1996년 창립된 학회로, 의료용 생체재료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 및 의학자를 중심으로 약 1천여 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학회이다. 또한, 한국생체재료학회는 4년에 1회 개최하는 약 5천여 명의 전 세계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2024년 세계생체재료학회(WBC)를 국내에 유치하는데 성공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국내학회이다.



‘한방으로 더 건강하게’, 동국대 본교에서 한방의 날 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18일 한방의 날을 맞아 동국대 교내 팔정도에서 한방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한방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서 지난 2006년 대한한의학협회에서 한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제정한 날이다. 이날 행사는 중간고사로 지친 학생들의 피로를 덜어주고자 동국대학교한방병원에서 준비한 체험 행사로, 경육고와 궁중 차 시음, 한약재 전시, 건강 상담, 체질 알아보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체험행사로 10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만드는 ‘향낭 만들기’는 방향제와 탈취재로 활용할 수 있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학생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동국대일산한방병원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 및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한방체험 이벤트를 진행해 내원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소아건강관리를 위한 식사동 원중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건강강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와 응급의학과 김재승 교수는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식사동 원중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들려주는 소아건강관리에 대한 강좌로 ‘소아응급 상황 시 보호자의 올바른 대처’와 ‘소아 건강관리’에 대한 각각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첫날강의는 응급의학과 김재승 교수가 가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소아 응급 상황별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화상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법 ▲작고 얇은 찰과상과 염좌 ▲복통 ▲가정에 필요한 상비약품 등 일반응급질환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는 소아 건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소아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건강문제와 발병 질환의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성장호르몬 분비량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주일에 3회 한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할 것을 권장했다. 또, 밤늦은 시간 음식 섭취제한,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 섭취제한,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